

제33강 논술의 이해와 접근

1) 논술은 어떤 글인가?

최근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가 강조되고 있어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논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논술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제대로 논술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경우 우선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실력은 대학 입학 후에도 쓰이게 된다. 논술 실력은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졸업 논문을 쓰거나 졸업 후에 직장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논술이란 쉽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며 이에 걸맞게 뒷받침 문장에는 타당한 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논술이라 한다. 이렇게 서술한 글을 논술문이라 하는데 특히 좁은 의미로 대학 입시에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제에 따라 서술해 나가는 글을 가리킨다 할 수 있다. 글의 장르상 논술문은 논설문에 속한다.

2) 논술은 어떻게 쓰는가?

논술문을 잘 쓰려면 다양한 논설문을 자주 읽고 분석해 보고 요약해 보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입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자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논제를 파악하여 쟁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뚜렷하게 제대로 내세워야 하며 이에 따른 논거가 타당해야 한다. 좋은 논술문을 쓰려면 창의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정확해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는 논술할 글의 분량을 제시하게 되는데 서론과 결론은 각각 전체 분량의 5분의 1정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분량에 따라 단락의 개수를 정하는데, 400~800자 정도의 분량은 3~4단락으로 하고, 1000~1500자는 4~5단락으로 한다. 1600~2000자는 5~6단락 정도로 한다. 단락이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장소의 이동, 시간의 경과,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단락을 바꾸며 강조할 때도 단락을 바꾼다. 단락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글이 산만하게 느껴진다.

한 문장의 길이는 30자~60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대체로 80자~100자 정도의 길이를 선호하는데 문장이 길게 되면 비문이 되거나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문장의 형태는 ‘무엇이 어찌하다.’(동사문)과 ‘무엇이 어떠하다.’(형용사문)과 ‘무엇이 무엇이다.’(명사문)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말은 서술성을 살려야 우리말다운 우리말로 동사문이나 형용사문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명사문은 영어 번역체의

경우가 많으므로 꼭 써야 할 경우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들은 명사문인데 ‘힘들어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우리는 힘들어하는 이웃을 현실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정부는 ~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은 물론이다->물론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로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를 나열할 경우, 순서가 있을 때 첫째, 둘째, 셋째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므로, ‘우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별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한, 아울러, 더불어’ 등으로 자연스럽게 문장을 연결한다.

3) 바람직한 논술 교육의 방향

다양한 지식과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써야만 좋은 논술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논술문을 제대로 쓰기는 쉽지 않다. 다양하게 독서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며 시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깊이 있는 지식으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사례를 다양하게 들어 정확한 어휘로 논거를 들 수 있다. 논술을 잘 쓰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론 도출과정이 적절해야 한다. 독창적인 내용으로 논술한 글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논지가 일관되어야 하며 논거가 정확하고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추론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풍부한 어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글 전체의 통일성과 유기성이 있어야 하며 일관성과 완결성이 있도록 글을 써야만 한다. 또 원고지 쓰는 방법에 맞게 정확하게 글을 써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논술문을 쓸 때는 논술고사의 유형에 따라 달리 써야 한다. 요약형이나 단독형, 자료 제시형 등 대학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먼저 문제를 꼼꼼하게 읽은 후에 쟁점을 파악하고 연상 단어를 쓴다. 그 연상 단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한 후 글을 써야 한다. 문제 유형에 맞춰 서술해 나가되 대체적으로 서론 앞부분에서는 최근 사례를 들어주거나 개념을 정의하며 시작하면 자연스럽다. 서론의 뒷부분에는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무엇을 살펴보고자 한다.’의 형태는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문제점의 원인이나 실태를 논술한 다음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해결 방안이 많지 않을 경우 결론에서 언급하는 것이 좋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쓴 글을 요약하되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아껴두었던 사례를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 주제문을 쓴 다음 전망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쓰는 것이 좋다. 학생들 대부분은 서론의 문제 제기 부분과 결론의 요약 부분을 자연스럽게 쓰기가 어렵다. 많은 논술문을 직접 써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쓴 글만을 읽어 본다든가 모범답안 같은 것을 모방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주 논술문을 써 보아 매끄럽

고 세련된 느낌이 나고 창의적인 글이 되게 해야 한다. 자료 제시형일 경우 지문 요약 및 분석은 서론의 첫머리에 넣거나 본론의 첫머리에 넣은 다음 쟁점을 찾아내 일반화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요건들을 인식하여 논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2006년 주요대학의 정시 논술 고사를 분석한 것으로 동아일보에서 인용하였다. 각 대학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논술 고사에 대비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대▼

가장 큰 특징은 영어 제시문이 사라진 것이다. 국문 제시문의 경우 길이가 짧아진 대신 제시문의 개수가 2 개에서 5 개로 늘었다. 과거 한국인에 대한 서양인의 다양한 관점과 인식을 우리 모습과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제시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제시문에 대한 분석적 이해력과 비판력 평가에 역점을 뒀다.

▼고려대▼

기존의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됐다. 4개 제시문의 공통 주제를 찾고, 제시문 간의 연관관계를 밝힌 뒤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중요하다. 공통 주제는 ‘질서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로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설정한 후 공통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한다.

▼서강대▼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주로 출제하는데 올해도 인간 정체성의 상실과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철학적인 문제가 출제됐다. 인간 정체성 혼돈과 비인간화는 사회 교과와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다뤘을 만한 내용이다. 암기된 답안이 나올 수 있어 논지의 전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울대▼

보통 장문의 제시문을 1, 2 개만 줬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무려 7 개의 제시문이 제공됐다.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기존의 출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를 나열한 뒤 ‘세 가지 경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성균관대▼

여러 제시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출제를 해 왔다. 지난해에는 영어가 포함된 3 개의 제시문과 1 개의 표를 주고 4 문항을 논술하게 했다. 올해는 영문 제시문을 제외하고 4개의 국문 제시문을 주고 2 개 문항을 출제했다.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고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논술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대▼

일상의 쉬운 문제를 주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는 논제에서 주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스스로 주제를 찾도록 했다. 제시문의 공통 주제 찾기는 고려대와 비슷하다. 제시문들의 공통 주제인 ‘불안’이 어떻게 사회 문화의 역동성으로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인 사회 문화 현상의 예를 들어 논술했는지가 관건이다.

▼이화여대▼

시사적 주제는 주제보다 심층적이고 원론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출제 경향이 유지됐다. 제시문을 주고 ‘언어가 사회적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언어가 올바르게 사용될 때 사회의 연대성과 윤리성 확보에 어떻게 이바지 하는지, 잘못 사용되면 어떤 폐해가 있는지를 논하면 된다.